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 최고의 불교대학!
동국대학교 인재불사에 함께 해주세요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0-649193 (예금주: 동국대학교)
후원문의 : 02-2260-3300(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71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1월 5일)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고려 사리·사리구 100년만에 고국으로

조계종·문화재청, 보스턴미술관과 합의 도출

고려 불교미술 정수 담긴 성보
부처님, 고려 선사 사리 담겨
사리-기증, 사리구-대여로 환수
부처님오신날 전 조계종에 기증
"사리는 성물, 여법히 모실 것"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00년만에 고국으로 오는 보스턴 미술관 소장 '은제도금라마탑형 사리구'.

고려시대 불교미술의 정수가 담긴 사리구와 그 안에 있던 석가모니 부처님과 선사들의 사리가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공 스님)와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월 5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미술관(관장 테이틀바움, 이하 미술관)을 방문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리 및 사리구의 환지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혜공 스님,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미술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상을 통해 양측은 사리는 불교의 성물로서 올해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조계종에 기증하며, 사리구는 상호 교류 전시 및 보존처리 등을 위해 임시대여하기로 협의했다. 대여 기간과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미술관 내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된 사리구의 정식 명칭은 '은제도금라마탑형 사리구'로, 원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던 14세기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정수를 담은 불교 성물이다. 사리구 내부에는 '은제도금팔각당형 사리구' 5기가 안치돼 있다. 사리구에 쓰여있는 명문에 따르면 각각 석가모니 부처님 5과, 가섭불(과거칠불 중 6번째 부처) 2과, 정광불(석가모니에게 미래에 성불하리라고 수기를 내린 부처) 5과와 고려시대 양주 회암사를 창건한 인도 출신 승려 지공 선사 5과, 공민왕의 왕사로 활동한 선지식 나옹 선사 5과의 사리가 담겨있었다. 다만, 현재는 석가모니불 1과, 지공선사 1과, 나옹선사 2과 등 총 4과의 사리만이 현존하고 있다.

사리구는 고려 말 나옹 선사 입적 이후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주 회암사가 원소장처다.

이번에 기증되는 사리는 한국 불교사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고려시대 지공 선사와 나옹 선사의 사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며, 사리 기증을 불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현지에서 협상에 나선 조계종은 사리 환수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부처님과 선사들의 진신사리(眞身舍利)는 불교의 성물이자 존귀한 예경의 대상으로, 환지본처의 의미를 새기며 사리를 최대한 존중하여 여법하게 모실 것"이라며 "보스턴미술관 측의 불교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고 문화재청을 비롯한 정부 측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리구의 임시대여도 국외로 반출된 지 약 한 세기만에 첫 국내 반입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전시를 통해 우리 국민이 고려불교미술의 우수함을 향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사리구가 국내 임시대여 되는 동안 보존처리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는 사리구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고려시대 공예품에 대한 국내 학술연구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사리 기증 및 사리구 임시대여 추진이라는 협상 성과를 통해, 사리는 불교의 성물(聖物)로서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가고, 사리구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문화유산으로서 약 100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와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조계종, 보스턴미술관과 긴밀한 업무협력 하에 남은 과제의 일정들을 착실히 추진해나감과 동시에, 이번 계기로 보스턴미술관과의 상호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종로구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이 윷놀이를 마치고 환한 미소로 기념촬영 하는 모습. 사진=조계종 홍보국

진우 스님, 다문화가족과 갑진년 첫 자비나눔

2월 6일 종로구가족센터서 6개 가족과 '떡국 만들기'

진우 스님, 아이들에 설빔 선물
아이들 세배 올리며 스님과 인사
진우 스님 "건강히 자라길" 덕담
전통놀이 즐기며 한국문화 체험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갑진년 첫 자비나눔 대상은 고향을 떠나 한국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었다. 민족 최대명절이라 불리는 설을 앞두고 스님과 다문화가족의 만남에 점차 옅어지는 명절 고유문화도 다시 살아났다.

진우 스님은 2월 6일 오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종로구가족센터를 방문해 다문화가족과 소통하고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을 찾아 특수·전문지원교사를 격려한 진우 스님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방문한 것. 여기에는 총무원 사서실장 진경 스님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덕운 스님이 동참했다.

스님과의 만남에는 △ 알리바 올가 씨(러시아 출신)와 아들 신성진(9) 군 △아마도바 라힐 씨(아제르바이잔 출신)와 딸 이아린(3) 양 △응우옌티리(베트남 출신) 씨와 딸 강나경(7) 양 △쭈티섬(베트남 출신) 씨와 딸 최선영(5) 양 △스윈(중국 출신) 씨와 딸 심혜주(12) 양 △주금령(중국 출신) 씨와 아들 이금호(13) 군이 함께했다.

센터에 도착한 진우 스님은 밝은 얼굴로 다문화가족과 인사를 나눈 뒤 미리 준비한 설빔을 아이들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어머니들에게도 별도의 선물을 전달한 진우 스님은 "여러분이 보고 싶었다.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의 가족으로서 살아가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단일민족이 아니고 세계화되고 있다. 모든 중생이 평등하고 차별 없이 살아가는 게 불교 정신인 만큼 힘든 일이 있어도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진우 스님은 아이들을 대표한 신성진 군에게 설빔을 건네며 "한복을 입어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신 군은 "예전에 한 번 입어봤다"며 수줍은 얼굴로 화답했다. 이어 아이들은 한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진우 스님에게 세배를 했다. 이에 스님은 아이들에게 직접 세뱃돈을 나눠주며 "건강하고 즐겁게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라"고 덕담했다.

세배 이후에는 스님과 다문화가족이 만두를 빚으며 명절 음식 만들기를 체험했다. "직접 빚은 만두를 각자 먹는다"는 사회자의 안내에 만두를 빚던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주먹밥 모양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장인의 손길처럼 아름답게 빚어낸 만두는 떡과 함께 채수와 사골국물에 담겨 떡만둣국으로 탄생했다.

떡만둣국이 만들어질 사이, 진우 스님과 다문화가족은 지하 2층으로 자리를 옮겨 투호와 윷놀이 등 전통놀이를 체험했다. 대형 윷을 하나씩 나눠 들고 하늘 높이 던지며 즐긴 윷놀이로 센터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이어진 떡국 공양에선 아이들이 한국어가 아닌 엄마 나라의 언어로 새해 인사를 전하며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20년 전 러시아 시베리아를 떠나 한국에 정착했다는 올가 씨는 "서강대 한국어학당을 다니면서 3개월마다 MT를 절로 갔다. 그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 템플스테이도 체험했다"며 "전통문화가 많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센터 덕분에 외국인들의 한국 적응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가 씨 아들 신 군도 "오늘 행사가 너무 재밌었다. 특히 금호 형이랑 제일 친해졌다"며 스님과 보낸 시간을 즐거워했다.

한편 종로구가족센터는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된 가족지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돕는 데 힘쓰고 있다. 2006년 개소 이래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종로구로부터 수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례관리와 통번역서비스, 부모코칭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 순례기도 안내

- 열암곡 마애부처님 순례기도, 마음의 평화 · 행복의 길로 안내합니다 -

■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기도로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순례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길이며, 희망의 미래불교를 위한 초석을 놓는 불사입니다.

■ 매일 사시에 기도법사 스님이 천일기도 및 동참자 축원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스님과 불자들의 순례기도를 통해 불교중흥, 국운융창의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 순례 안내 : 사찰 또는 단체의 경우 미래본부로 미리 상담 및 일정을 알려주셔요.
- 열암곡 현장 기념품 지급 : 기도의례집, 개인방석, 생수, 홍보자료 등
- 필요한 경우 기도법사 또는 해설사가 동행안내 및 기도를 진행해 드립니다.

● 순례 문의 : 02-737-0883 (조계종 미래본부)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기도접수 안내

천 일 기 도 : 2023. 4. 28(금) ~ 2026. 1. 21(수)
기 도 법 사 : 환풍스님 • 선우스님 • 여진스님
기도동참비 : 100일 10만원 / 1년 30만원 / 1000일 100만원
기 도 신 청 : 전국 사찰 종무소(수시접수) 또는 아름다운 동행
다라니기도 : 매월 첫째주 토요일 사시



열암곡 순례 정보

「천년을 세우다」 후원동참 : 농협 301-0248-0882-41 (예금주 : 아름다운 동행) ARS : 060-700-0012 (한통화 3천원) 문의 : 02-6273-0108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